

南冥集의 異本 檢討

—內容의 增刪문제와 關聯하여—

李 離 和*

南冥 曹植(1501~1572)은 外憂內患이 없었던 조선조 중기에 태어나 살았다. 그리하여 그가 산 시대에는 많은 儒學者들이 율홍했으나 그가 죽을 즈음에는 黨爭의 조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慶尙右道の 三嘉縣에서 태어났고 晩年에는 智異山 밑 山淸 德川洞에서 山天齋를 짓고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리하여 慶尙右道の 土風을 진작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巨儒였던 탓으로 같은 시대에 산 慶尙左道の 退溪와 함께 慶尙道の 쌍벽으로 쳐왔다. 이런 南冥에게서는 몇가지 특별한 분위기를 발견할 수가 있다.

첫째는 철저한 은둔적 기질이다. 그는 어릴적에 벼슬하는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산 적이 있으나 落鄕한 뒤에 벼슬에의 뜻을 버렸다. 중앙의 정치를 외면하고 결코 벼슬길에 나가지 않은 것이다. 당시 學德이 높은 선비에게 의례 그러했듯, 그에게도 여러차례 벼슬이 내렸었다. 그러나 결코 벼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그럴 때마다 時務에 관한 上疏를 올려 그것에 대한 보답을 나타냈을 뿐이다.

둘째 그는 학문의 요지를 實踐躬行에 두었다. 그는 실천이 따르지 않는 高踏的 이론을 배격했다. 그는 「敬以直內 義以方外」에 토대를 둔 敬義를 그의 實踐躬行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기에 日常生活에서 늘 방울을 차고 다니며 자기를 깨우쳤고 칼을 머리말에 놓고 결단을 표시했다. 이것을 敬과 義의 表象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南冥은 義에 어긋나는 것은 고집스러우리 만큼 용납하려 아니했다.

셋째는 道家的 분위기가 삶과 학문에서 깔려 있는 점이었다. 이 문제는 南冥이 살아 있을 당시에도 다소의 논란이 있었고, 사후에는 더욱 논쟁을 일으켰다(이 문제는 뒤에 언급하겠음). 실제 南冥의 철저한 은둔과 그의 詩文에 깔려 있는 人生觀・自然觀은 이 말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다. 다만 당시 老莊을 異端으로 배척하는 풍토에서 이것을 마음껏 드러내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어쨌든 南冥이 죽자, 조정에서는 學德을 기려 賜祭했고 大司諫을 증직했으며 死後 光海君 때에는 다시 領議政으로 증직하였고 謚號도 내렸다. 이런 王朝時代의 대접으로 해서 南冥은 山林의 處士로서가 아니라 巨儒로 추앙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가 길러낸 門人은 당시 山林에서나 조정에서 명망있던 人士들이 많았다. 그리

* 朝鮮後期史

고 門人들은 대부분 스승의 행적에 따라 은둔적 행적을 보였으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린 적도 있었고 出仕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었다.

南冥의 門人들은 退溪의 門下에도 많이 출입했다. 兩門에 출입한 사람들 중에 寒岡 鄭述와 東岡 金字顛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南冥의 首弟子格인 鄭仁弘, 退溪의 首弟子格인 鶴峯 金誠一, 西厓 柳成龍은 자기 자기 스승만 추앙했고, 오히려 자기 자기 스승의 학문과 행적을 놓고 異見을 보이거나 분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異見과 분란은 兩門 사이에 있어 뒷날까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었다.

한편 南冥의 뜻과는 달리, 그의 門人들이 黨爭이 치열해지자 退溪의 門人과 같이 처음에는 東人과 南人으로, 나중에는 北人 또는 大北(鄭仁弘 계열)으로 흘러가서 정치적 소용돌이속으로 빠져 들었다. 이중에 南冥 門人과 관계되는 두가지 큰 사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崔永慶이 1590년(宣祖 23), 그 전해의 己丑獄事에 관련되어 誣死를 당한 것이다. 西人들은 鄭汝立의 모반을 들추어 내어(誣獄이라는 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유력하다) 東人들 천여명이 被殺되었고 이를 계기로 西人이 집권했었다. 東人들은 그후 崔永慶의 冤死를 풀기에 노력한 끝에, 1594년 壬辰亂 중에 伸冤되었다.

둘째는 1610년(光海 2) 오랜 논란을 벌이던 五賢(金宏弼 鄭汝昌 趙光祖 李彥迪 李滉)에 대한 從祀가 단행되자, 鄭仁弘이 李彥迪과 李滉의 配享을 반대하는 논박을 벌였다. 이에 成均館의 儒生들은 退溪의 계열이 중심이 되어 靑衿錄에서 鄭仁弘의 儒名을 삭제했다. 그리하여 그전의 退溪와 南冥門人 사이의 약간의 異見과 마찰이 이를 계기로 메울수 없는 지경으로 돌고 갔다.

이런 과정과 조건 속에서 南冥의 文集은 간행되었다.

1) 四次의 文集 刊行

南冥은 원래 저술을 하지 않는 편이다. 그는 文字를 그리 중요시 않고 앞에서 말한 대로 實踐躬行을 學問의 主旨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더러 저술이 있어도 스스로 정리·소장하지 않기도 했었다.

어쨌든 그의 제자들에 의해 散見되는 南冥의 詩文은 모아져 간행되었고 계속해서 增刪이 거듭되어 왔다. 그 文集 刊行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原刻本; 南冥의 沒後 30여년이 지난 뒤인 1604년(宣祖 37) 甲辰年の 初刊을 말한다. 이 初刊은 鄭仁弘 등 門人들에 의해 수집·간행되었는데 原本이 전해지지 않는다.⁽¹⁾

「西厓集」에는 이에 대한 跋文⁽²⁾이 있는데,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孟子曰 誦其詩 讀其書 不知其人 可乎 吾於此書亦云 萬曆甲辰跋.

(1) 再刻本の 序(鄭仁弘)와 관계 文件에는 「萬曆甲辰」(1604)으로 되어 있다.

(2) 西厓集 卷 18 書南冥集後.

이로 보면 原刻本에서 西厓의 跋文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跋文으로서는 이만 저만 실례가 아니요 어찌면 저의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2) 再刻本; 1622년(光海君 14) 原刻本을 토대로 改校⁽³⁾한 것이다. 이 본에는 德川書院에서 改校했다는 刊記가 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柳成龍의 跋文이 빠져 있는 대신(이 跋을 실지 않는 것은 위의 내용과 같기에 당연한 일이다)에 앞에 鄭仁弘이 原刻本の 年代에 쓴 序文이 轉載되어 있다. 이 序文에는

先生既沒 收錄得若干篇 亦出於後輩傳誦之餘 隨聞隨錄 頗有訛誤 是誠後世之一大恨也 就爲一通 鳩工鏤梓 覲爲斯文章焉

이라는 구절이 보이니 改校에 대한 내용은 뒤 刊記 이외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4卷 중에 卷①, ②는 南冥의 詩文, 卷③는 祭文 등을 모은 부록, 卷④는 補遺와 追錄으로 되어 있는데 追錄에는 「乙卯年」(1615, 光海君 7), 「丙午年」(1606, 宣祖 39)의 應製祭文 및 門人의 祭文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卷③·④는 原刻本에 없었던 것을 改校할 때에 수집하여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3) 三刻本; 1764년(英祖 14)에 再刻本의 내용에 增刪을 가해 간행하였다.⁽⁴⁾ 곧 別集으로 世系 年譜 言行錄 그리고 師友錄을 덧붙이고 鄭仁弘의 關係文件을 뺀 대신에 許穆의 神道碑등을 삽입한 것이다.

別集의 跋文과 관계 기록에 의하면 원래 1636년(仁祖 14)과 1640년에 걸쳐 수집·정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곧 朴綱 河弘度 등의 別集 跋文이 위의 年代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추진한 사람인 朴綱이 수집 기록하고 趙任道 林眞愆 河弘度 등이 검토를 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別集 5권의 雜記에 正祖의 賜祭文(正祖 20년에 해당하는 丙辰年)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실제의 간행은 위의 연대보다 뒤로 추정되기도 한다.

또 朴挺新의 校正跋이 있는 점으로 보아 刊行할 적에 다시 校正을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이 刊本の 보충·개정은 仁祖反正후 鄭仁弘이 逆賊의 罪名으로 죽은 후에 이루어진 점이 주목된다 하겠다.

(4) 改訂本; 1894년(高宗 31) 후손 曹淵과 그의 李道樞 등이 三刻本에 刪削과 改訂을 가해 編次를 다시 정하여 간행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이 詩文을 수집하여 續集을 덧붙였다. 李晩寅이 쓴 改訂本の 跋文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南冥先生詩文二册學記二册 編葺於鄭仁弘手分中 至不成文集貌樣 此寒岡鄭文穆公 所爲長吁永歎者也

間經三改板本 而其爲初本之誤 依然故 在後學之積抱慨鬱 殆數百年于茲矣 大論始定 乃就原集中 考校各本之同異 參之以人家石本板本 而整齊之 又取遺落詩文藏在人家 見於刊行者 合爲拾遺一編以附焉 於

(3) 奎章閣 소장 (No. 3428-146)의 南冥集 권4 끝에 「天啓壬戌仲秋德川書院改校」라는 刊記.

(4) 奎章閣 소장 (No. 1362)의 8책.

是乎原集定頓矣 復就學記中 並去諸圖 以還節記之舊 先儒諸說之 或不無脫誤者 悉考本文 填改之 言句之無甚發明者 刊削之

이로 보면 補遺의 성격과 改正의 의도 이외에 鄭仁弘의 손질과 그에 관련되는 것을 三刻本보다 더 없애려는 뜻이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이러 1897년에는 새로 쓴 「南冥先生編年」과 朴綱의 師友錄을 고친 「德川師友淵源錄」을 덧붙여 놓았다.

이처럼 크게 네 차례에 걸쳐 文集이 간행된 것은 단순한 補遺의 성격만을 지니고 있지 않는 점에서 특이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리하여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각 校本의 내용 출입을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2) 目錄을 통해 본 내용의 出入

우선 再刻本의 목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序……鄭仁弘	題黃江精舍
墓碑文…成大谷	梅下種牧丹
行狀……鄭仁弘	題德山溪亭柱
	遊安陰玉山洞
卷之一	咏青鶴洞瀑布
五言絕句	涵碧樓
書劔柄贈壯元瑗	贈太容
織女巖	寄子修姪
次觀水樓韻	孤舟晚泊
贈吳學祿健上京	辭三足堂遺命歲遣之粟
別敬溫師	奉和健叔因問金太容
漫成	寄健叔
寄叔安	又
漫興	無題
贈別	無題
山海亭偶吟	蝴蝶樓
偶吟	贈行脚僧
題古屏贈子修姪	贈鄭判書惟吉
又	題姜郊多檜淵茅亭窓
在山海亭次周景游韻	贈崔明遠追送蛇山別
答人	無題
種竹山海亭	偶吟
題龜岩寺	贈山人惟政

(5) 再刻本에는 文集의 常例인 目錄이 앞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 異本을 비교하는데 이 목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을 그는 題名은 뒤의 改訂本(高宗年間)에 빠진 것임을 表한 것.

- 偶吟
 寄三足堂
 贈成東洲
 謝僧送圓扇
 無題
 無題
 贈金烈
 書張判官衣
 贈吳學祿
 挽詞
 挽朴虞侯
 山寺偶吟
 咏獨樹
 贈崔賢佐
 奉三山卓爾丈
 寄大谷
 書李黃江亭楹
 和健叔呈崔賢佐于金積山齋
 贈三足堂
 挽貞夫人崔氏
 挽河希瑞
 又
 寄子修姪
 姜參奉挽詞
 贈成仲慮
 奉上仲玉丈
 贈石川子
 題三足堂
 醉贈叔安
 七言絕句
 斷俗寺政堂梅
 送寅叔
 題五臺寺
 山中即事
 又
 鄭監司宗榮見過
 聞李愚翁還鄉
 庭梨
 青鶴洞
 贈別妹兄寅叔
 又
 江亭偶吟
- 有感
 春日即事
 游安陰玉山洞
 又
 送李慶胤
 漫成
 次友人韻
 贈君浩
 明鏡臺
 菊花
 訪村老
 黃溪瀑布
 又
 德山偶吟
 沐蓮
 又
 鳳鳴樓
 讀項羽傳
 和健叔
 詠橘
 寄柳繼先魚士拱明月寺讀書
 和寄宋相
 漫成
 贈朴君思恭
 答贈張都事儀仲
 贈熙鑑師
 清香堂八詠
 竹風 松月 琴韻 雪梅 霜菊 盆蓮 經傳 八〇
 漫成
 讀書神凝寺
 遊白雪洞
 無名花
 聽別李學士增榮
 山海亭苦雨
 漫成
 浴川
 德山卜居
 喪子
 寄西舍翁
 和風月軒韻
 題黃江亭舍
 贈可遠

次梁山雙碧樓韻
 題子修畫屏襄陽城
 鮑石亭
 贈成仲慮
 又
 和清香堂詩
 贈五臺僧
 詠梨
 題聞見寺松亭
 又
 無題
 挽裴生
 無題
 兼贈太溫健叔
 次景游韻題僧軸
 野翁亭
 畫竹
 贈宜奉倅
 在盆城聞打麥聲
 頭流作
 寄河君礪
 題永陽採蓮堂
 無題
 在山海亭書大學八條歌後贈鄭君仁弘
 挽陳克仁
 和上賢佐
 又
 寄黃江
 游黃溪贈金敬夫
 又
 竹淵亭次尹進士奎韻
 又
 又
 又
 川上吟
 挽姜進士瑞
 又
 無題
 又
 七言四韻
 挽河希瑞
 又
 涵虛亭

挽貞夫人崔氏
 竹淵亭贈尹進士奎
 竹淵亭次文老韻
 江樓
 題宋氏林亭
 題鄭思玄客廳
 題房應賢茅亭
 贈別大谷
 贈黃江
 寄大谷
 次湖陰題四美亭韻
 無題
 次方伯韻
 次默齋吟
 次休叟吟
 明鏡臺
 次湖陰題四美亭韻同題
 司馬所宴
 無題
 題玩龜亭
 題玩龜亭題詠後(宜慰使李山海)
 次徐花潭韻
 七言長篇
 狐白裘詩
 蘇子卿詩
 六國平來兩鬢霜詩
 原泉賦
 民岩賦
 軍法行酒賦
 座名銘
 佩劍銘
 革帶銘
 金人銘
 神明舍圖
 慎言銘
 拾遺
 地雷吟
 謝李原吉送醫

卷之二
 答退溪書
 與全州府尹書

與李陝川書
 答李相國原吉書
 與清道侔書
 答慶安令守夫書
 與申松溪書
 又
 又
 又
 又
 與吳御史書
 與子強子精書(附鄭仁弘誌)
 答成聽松書
 又
 又
 與盧公信書
 與江原監司書
 與吳子強書
 答吳子強裴景餘書
 與成大谷書
 又
 又
 又
 又
 又答子強書
 示松坡子
 答仲輔等書
 答仁伯書
 奉謝金進士肅夫
 又
 又
 又
 又與肅夫書
 又
 又
 又
 又
 又
 答權學官應仁書
 雜著
 杏壇記

陋巷記
 永慕堂記
 殿光論
 解關西問答
 書圭菴所贈大學册衣下
 題李君所贈心經後
 書李君原吉所贈心經後
 寒暄堂畫屏跋
 策問題
 題成中慮所贈東國史略後
 涵虛亭記
 游頭泳錄
 墓誌
 進士金公宜仁安氏雙墓誌銘
 中訓大夫侍講院輔德贈通政大夫承政院都承旨
 趙公墓銘
 通訓大夫承文院判校曹公墓碣銘
 宣務郎戶曹佐郎金公墓碣
 處士申公墓表
 進士姜君墓表
 中直大夫行文化縣令淑人玄氏雙墓表
 李陝川遺愛碑文
 軍資監判官李君墓碣
 魚執義夫人白氏碑文
 宜人郭氏墓表
 宜人李氏墓表
 淑人南人墓表
 恭人牟氏之墓
 義城金氏墓誌
 貞夫人崔氏墓表
 盧君墓銘
 疏類
 乙卯辭職疏
 戊辰封事
 謝宣賜食物疏
 辛未辭職承政院狀
 卷之三 附⁽⁶⁾
 旨…具鳳齡
 의 5면

(6) 권3의 부록 내용은 전부 삭제.

祭文…沈義謙(應製)成大谷 盧禎 吳健 鄭仁弘 金宇顯 鄭述 崔永慶 河沆 任說 李長榮 李魯 裴紳 李濟臣 柳宗智 李濟臣(위 同名人과 다른 晋州牧使; 필자주) 郭起 權偷 趙瑗

挽章…成大谷 盧守愼 鄭惟吉 朴淳 李純仁(2편) 梁應鼎 金宇宏 金宇顯(2편) 盧禎(2편) 吳健 鄭琢 金孝元 金僖年(2편) 金克一 李山海(2편) 鄭述 裴三益 俞大脩 林葛川 朴啓賢(2편) 金彥麟 許曄 許筠 許篈 尹根壽 李忠綽 李純仁

追入(曹植·李滉 李楨 3인의 논란 전말)…鄭仁弘記

附 退溪答李楨書(2편)

卷之四 補遺

與退溪書

與柳海龍書

答慶安令書

答子強子精書

又

書景賢錄後

通訓大夫光州牧使辛公墓銘并序

孝子鄭白泳墓碣銘

宜人崔氏墓碣

附⁽⁷⁾

行狀…金宇顯

行錄…金宇顯

行錄…裴紳

護喪所吊狀…成大谷

德山書院重修奉安告文…鄭仁弘

龍岩書院重修奉安告文…鄭仁弘

龍岩享祀祝文…鄭仁弘

德川享祀祝文…崔永慶

追錄

祭文…朴鼎○(應製) 鄭述(2편) 柳永詢

德川書院上樑文…吳長

神道碑銘并序…鄭仁弘

再刻本の 編次는 위 목록대로 앞에는 序·墓碑文·行狀이 권①은 詩로 五言絶句 七言絶句 七言四韻 七言長篇과 賦·銘(圖)·拾遺로, 권②는 書·雜著(記·論·跋 등)·墓誌·疏類로, 권③은 附錄으로 旨·祭文·挽章·追入 등, 권④는 補遺로 附·追錄 등으로 되어 있다. 이에 위의 권 ③·④는 追錄의 祭文에 「萬曆乙卯年」(1615) 이후의 것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初刻本에 없었던 것을 再刻本을 편집할 적에 덧붙인 것으로 보인다.

三刻本은 再刻本을 토대로 再編輯한 것인데 그 再編輯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編次를 바꾸고 있다. 앞에 序·墓碑文·行狀을 빼고 序文없이 본내용을 編次하고 있다. 곧 권①에서 詩를 五言絶句·六言絶句·五言四韻·七言絶句·七言四韻·古風·七言長篇, 그리고 賦·銘으로 분류하였다. 권②에서는 序·記·跋·疏·論·雜著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成大谷의 墓碑文을 부록에 분류하는 등 再刻本의 내용을 새로이 文集체제와 내용을 세분한 것으로 一見 정리된 모습을 보여준다.

둘째는 再刻本의 내용 중에서 새로이 덧붙이거나 뺀 것들이 많다. 再刻本에 수록된 鄭仁弘의 序와 行狀·祭文을 비롯 鄭仁弘의 神道碑銘과 祝文 등(4件)을 모조리 빼고 있다. 그 대신 許穆과 趙綱의 神道碑銘을 삽입하였다.

(7) 附 이하도 모두 수록치 않았음.

詩에 있어서는 再刻本의 것을 순서와 제목만 바꾸었을 뿐 그대로 실고 있으며 새로이 보태진 것은 몇 首외에는 별로 없다. 다만 주목되는 것은 學記類編을 새로이 삽입한 것이다. 이것은 南冥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南冥이 門人들을 가르칠 적에 말한 것을 鄭仁弘 등이 중심이 되어 기록한 것인데 이런 學記를 上下 14項으로 나누어 編次를 새로 정하고 校正을 가하여 凡例와 跋(鄭蘊)을 덧붙인 것이다.

그리고 別集을 새로 만들어 世系·年譜·言行總錄(許穆·趙綱의 神道碑銘 포함)·師友錄 등을 수록하였다. 이것은 朴挺新 등이 중심이 되어 편집한 것인데 전체적으로 鄭仁弘의 關係事實 이외에는 여러 자료를 조사·정리한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겠다.

改訂本은 위 두 本에 토대를 두었으면서도 전반적으로 編次를 뜯어 고치고 있다. 권①에는 賦를 앞에 두었고 다음 詩를 저작 年代順으로 수록하고 있다. 권②에는 疏·狀·封事, 권③에는 書, 권④에는 雜著·記·跋, 권⑤에는 銘·箴·墓碣誌銘·墓表순으로 엮었다.

이 本에서의 增刪은 특이하다. 鄭仁弘의 관계 사실은 물론, 本集의 序는 수록하지 않고 李晚寅은 跋에서, 三改板本이 오류가 많아서 增刪했다는 동기를 밝히고 있다. 詩에 있어서 앞의 두 本에 비해 상당량을 빼고 있으며 새로이 보태진 것은 2·3首(遊箕山 冬至用朱子韻)에 지나지 않고, 각기 詩題目을 약간씩 달리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愼言銘 陋巷記 등과 기타에서 여러 편을 빼고 있다(내용 변조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論及함).

그리고 새로이 덧붙인 것은 續集으로 書 5편, 雜著 3편, 記 1편, 碑碣 2편 등이다. 그리고 三板本의 世系·年譜를 빼는 대신에 編年을 새로 덧붙였고 學記類編은 많은 삭제를 가하고 圖面도 本文에는 일체 수록치 않고 끝에 三板本에 있는 도면의 내용과 다른 10件的 도면을 끝에 덧붙여 놓았다.

이어 師友淵源錄과 附錄도 삭제하였다. 이것은 編年의 내용에 흡수되기도 한 것이나 전반적으로 뜯어 고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本集에 있어서는 분량이 再刻本에 미치지 못하며 學記類編 및 附錄에 있어서는 三刻本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내용 削除와 變造의 정도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뺐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 보기로 한다. 시에 있어서는 위의 목록에서 본대로 文字를 고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詩를 삭제하여 수록하지 않고 있다. 그 삭제한 詩 중에서 문제되는 몇 首를 들여보면 다음과 같다.

裁得花王來 廷臣梅御史
孤鶴終何爲 不如蜂與蟻⁽⁸⁾

「孤鶴」으로 표현되는 은둔의 處士로서의 자기 身上과 비긴 내용으로 보인다.

(8) 卷之一 五言絕句 梅下種牧丹. 방점 부분은 그 시의 主題를 나타내는 내용. 아래도 같음.

喪非南郭子 江水渺無知
 欲學浮雲事 高風猶破之⁽⁹⁾

道家적 분위기와 함께 속세의 되지 못한 일을 비웃는 분위기를 풍긴다.

名字曾羞題月脇 笑把蚊蝼下蟬宮
 人緣舊是三生業 半日歸來擬赤松⁽¹⁰⁾

道家和 佛家の 주제를 속세와 탈속세로 비겨 다루고 있다.

半庭梨樹兩三株 遮爲東陽擬木奴
 無子一生全類我 世人應道學揚朱⁽¹¹⁾

얼매없는 배나무를 자기 신세와 비기고 세상 사람의 이단을 배운다는 자기에 대한 임방아를 말한 것이다.

獨鶴穿雲歸上界 一溪流玉走人間
 從知無累醜爲累 心地山河語不看⁽¹²⁾

지리산 청학동의 얘기를 통해 번거로운 세상 일과 보이지 않는 靑鶴 곧 도가적 이상을 읊었다.

英雄死去知無數 讀到離歌咽不成
 拔木畫冥天意在 如何重作兩瞳生⁽¹³⁾

項羽와 같은 영웅의 不運을 한탄한 것이다. 자신을 항우와 같은 불운한 사람으로 비견듯 하다.

麻室靡兒儻似我 無根無蒂我如雲
 送了一生無可奈 餘年回首雪紛紛⁽¹⁴⁾

아들을 잃고서 자기 신세를 중에 비겨 한탄한 것이다.

過午陽和醉似濃 萬條楊柳一邊風
 幽人解讀全陽子 打麥猶聞聲在空⁽¹⁵⁾

보리 타자 소리를 들으며 은거생활을 하는 자신이 옛 은거생활을 하던 全陽子 俞琰의 참

(9) 위의 책 五言絕句 涵碧樓
 (10) 위의 책 七言絕句 題五臺寺
 (11) 위의 책 七言絕句 庭梨
 (12) 위의 책 七言絕句 靑鶴洞
 (13) 위의 책 七言絕句 讀項羽傳
 (14) 위의 책 七言絕句 喪子
 (15) 위의 책 七言絕句 在盆城聞打麥聲

뜻을 알았기에 聞聲在空하는 경지임을 읊조린 것이다.

그리고 「次徐花潭韻」은 「用徐花潭敬德韻」으로 제목을 고친 경우도 여럿 있고 「在山海亭書大學八條歌後贈鄭君仁弘」에서 그 並序와 「後贈鄭君仁弘」을 뺀 경우도 있고 無題·漫成 등의 제목에서도 여러 首를 빼고 있고 「題三足堂」에서는 人歸西伐路(벼슬 길)와 江注南河伯(은둔자의 삶) 같은 귀절을 누락시킨 경우도 있다.

이어 일반 文에 있어서는 與子強子精書 陋巷記 李陝川遺愛碑文 慎言銘등과 그리고 앞에서 말한 鄭仁弘이 지은 글들⁽¹⁶⁾이 삭제되어 있다. 「與子強子精書」는 南冥이 제자인 吳健·鄭琢에 보낸 것으로 「李龜岩事」로 일러지는 李楨과 南冥과의 絶交로 번진 내용을 담은 것이다. 이 서간에 덧붙여진 鄭仁弘의 誌에 의하면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南冥의 친구인 黃江 李希顏은 喪妻한 뒤 한 側室을 두었다가 再娶한 뒤에 내쫓았다. 李希顏이 죽고난 뒤 再娶夫人 李氏의 「不謹之說」이 나돌았다. 朴啓賢이 감사로 부임하자 李楨은 이것을 다스리라고 하였다 한다. 이에 鄭仁弘은 처가집 일이라, 南冥에게 가서 상의하자, 南冥은 李楨이 잘 모르는 일로 一門에 화를 입힌다고 말하고 淫行의 일이 뚜렷한 河宗岳의 後妻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감사는 河宗岳의 노비들을 잡아들였다. 李楨은 또 河宗岳의 庶昧를 첩으로 두었었는데 李楨이 힘써 이 일을 또 무마하였다. 그 전에 南冥에게 李楨은 婦人의 淫行을 士子가 다스려야 하느냐고 물었는데 南冥은 自己수양에 겨를이 없으니 有司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었다. 처음에는 그대로 있다가 中道에 이 사실을 李楨이 發告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나무랐는데 이 소문은 南冥이 과부의 淫行 따위의 일에 간섭한다고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던 것이다.

이에 그 사실의 전반을 밝힌 위의 편지를 제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런데 李楨 또한 자기의 처지를 변명하는 과정에서 退溪에게 해명 편지를 보냈었는데 退溪는 南冥의 처사를 두고 이렇게 답서를 보냈던 것이다.

彼鄉里一婦失行事與否 是何等一塵穢事 使斯人而說此事 宜若洗耳而不聞 乃爲之自貶損高節 與人爭是非費盡心機 至於積年而猶未至 誠所未曉 然公不幸而遭此變…⁽¹⁷⁾

이 일로 하여 士林들은 많은 논란을 벌였고 兩門 사이에 하나의 분란의 꼬투리가 되었다. 더욱이 退溪가 南冥의 人品을 나무란 것과, 南冥이 退溪를 약간 못마땅해 한 일도 있게 되었다. 退溪가 아들에게 죽으면 碑를 세우지 말고 다만 작은 돌로 「退陶晚隱眞城李公之墓」라고 새기라고 당부하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南冥은 冷笑하며 “퇴계는 이 칭호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나같은 사람도 隱者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부끄러움이 있다”고 퇴계의 철저하

(16) 鄭仁弘이 쓴 南冥관계의 글은 再刻本에 수록된 것외에, 來庵集에 수록된 것으로 「南冥先生答先生書」와 「南冥先生病時事蹟」이 있다.

(17) 退溪集 書의 「退溪答李楨書」.

(18) 燃黎室記述 宣祖朝故事本末의 「宣祖朝儒賢」 李滉條.

지 못한 處身을 간접으로 나무랐다.⁽¹⁸⁾

이리하여 兩門의 門人들은 두 스승을 두고 때로는 난처하게 때로는 異論을 깊게 만들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죽고난 뒤, 光海年間に 五賢從祀문제와 결부되어 鄭仁弘이 靑衿錄에 삭제되는 등 정치적으로 몰리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그의 「陋巷記」는 顔子の 安貧樂道를 말한 것이다. 「李陝川遺愛碑文」은 陝川郡守로 善政을 베풀었던 李增榮의 공적을 기린 碑文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수록되었으면서도 글 내용을 삭제, 번조한 경우이다. 다음 표본으로 몇가지 경우를 들어보기로 한다.

書簡文에 있어서 논란을 빚었던 南冥의 「答退溪書」와 「與退溪書」⁽¹⁹⁾를 먼저 살펴 본다.

答退溪書

平生景仰有同星斗于天曠世難逢長似卷中人忽蒙賜諭勸懲撥藥弘多曾是朝暮之遇也植「之愚蒙寧有所斷耶」只以「構取」虛名厚誣一世以誤 聖明「盜人之物猶謂之盜況盜天之物乎」用是踟躕無地日俟天誅「天譴果至」忽於去年冬腰脊刺痛月餘右腳輒蹇已不得齒行人列雖欲蹈履平地上寧可得耶於是人皆知吾之所短而僕亦不能藏吾之短於人矣「堪可笑嘆」第念公有燃犀之明而植有戴盆之嘆猶無路承教「於懿文之地」更有眸病昧不能視物者有年明公寧有撥雲散以開眼耶「伏惟鑒察察遙借紙面語能稍展蕉葉乎謹拜（薪一作薪薪盜人之物一作窃人之財）」⁽²⁰⁾

위에서 우리는 7구절을 빼고 있음을 볼수 있는데 끝의 삭제 부분 이외에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뜻을 바꾼 것들이다.

與退溪書

百年神交直今違面從今住世應無幾矣竟作神道交耶人間無限不好事不足介懷獨此第一含恨事也 每念先生一向宜春猶有鮮鯪之日向今未焉斯亦并付之命物者處分矣近見學者手不知洒掃之節而口談天理計欲盜名而用以欺人「反爲人所中傷」害及他人豈先生長老①無有以呵止之故耶如僕則所存荒廢罕有來見者若先生則身到上面固多瞻仰 十分② 抑規之如何「伏惟量察不宜甲子季秋十八日甲末健伸」

①의 「老」는 「者」로 ②의 「十分」은 「幸」으로 바꾼 것이다. 2구절을 빼고 2곳을 고치고 있다. 고친 것 곧 「長老」와 「長者」, 「十分」과 「幸」은 語感이 다른 것이다. 위의 두 書簡은 서로 만나지 못한 정과 당부를 결들인 것이나 뒤에 兩門에 미묘한 관계가 일어났을 적에 그 文脈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다음 南冥과 從遊했던 成守樑의 與信에 答한 3편의 書簡中 그 2편의 내용은 이리하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德川師友淵源錄에는 「先生素與公交契特深 至老不衰 有往復詩書」라 했다. 이런 친숙한 중에 우정을 교환한 서신이 전해지는 것이다.

(19) 三刻本 권2 書, 改訂本 권3 書. 原典 그대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句節의 단락을 짓지 아니했음. 아래로 같음.

(20) 「」의 표시는 삭제, 一의 표시는 글자를 바꾼 것을 나타냄. 아래도 같음.

又⁽²¹⁾

是歲十一月邑① 人宋瑛傳公八月玉② 札並與諸公所詠「二十年前不通消息於今始達」 摠是滿掬明珠受賜無量每③ 聞大夫人康寧旋祝萬壽植亦尙保性命霜雪滿頂盜取盛④ 名以累尊公之雅 「非但自誣而已」 益自罪愧更歎⑤ 健叔之⑥ 藏修不露曾未⑦ 見保於人「而愚獨自銜於世厚誣君子」 吾無以見此人矣⑧ 所索四言詩和上嘗以嘍詩非但玩物喪志「之尤物」於植每增無限驕傲之罪用是廢閣詠詠近出數十載今幸⑨ 蒙有遠命雖分肝肺在所不惜矧此片紙隻字乎只恨公不以自詠見及若以辭拙爲嫌則公不是矜於工詩者也 此後消息漠如霄漢只增「挑出相忘」舊懷誠不堪自裁今此寶書歸者「其名」元右釋曾自沙彌出⑩ 宋家尙書獻叔名之曰右釋「者乃謂前則釋也」稍可與傳信者借寄千里面目「壬子十一月日」

위에서 ①은 鄉, ②는 手, ③은 삭제, ④는 虛, ⑤는 삭제, ⑥은 삭제, ⑦은 不, ⑧은 삭제, ⑨는 삭제, ⑩은 返으로 고치고 그의 구절을 뺀 것이 7곳이다. 위의 것은 두어 군데 문장을 다듬은 경우도 있다.

다음은 大谷 成運에게 보낸 서신의 경우이다. 大谷과 南冥과는 從遊의 사이였다.

又⁽²²⁾

垂死之日非朝則夕寧知千里信書邇月再到耶 「今有李仲宣者乃翩翩間世之佳才也能傳我將絕之懷斯亦關數耶」想① 得邇來起居依舊亦猶② 帶舊樣兩老好消息此外何加焉新人不如舊人 「於今益信非但思公益深需死之日」每憶③ 薰染之賜更無「一寸」有望於他人直今歸化之日可謂無相負矣死者④ 有何知虞今日之相礙⑤ 耶「僕薑桂之性到老猶辛外來之言雖或百車每付之一寒笑雖至於斷頭萬不顧情況不至於斷頭乎但持行無似以致罪責自我祝公公到百年何嘗有一人非公者乎 公猶不曾一致誠責者抑何歎至與六云者相失夫豈有私論之陰譏也舉朝角立黑白昭昭而交手權門威制上下轉黑爲白雖古權奸蔑以加此所謂道學宗師者果如此乎 非公何敢及此時議若此何以瞑目於地下乎旋復拍手拍手」乾海蓼選上沉水久烹作膽然此豈合於老齒耶

위에서 ①은 認, ②는 삭제, ③은 念, ④는 阻로 고쳤으며 李仲宣의 예기와 자기 身上과 時局에 관한 言及 부분을 빼고 있다.

다음은 金宏弼이 소장했던 安堅의 그림이 있는 평풍에 대한 跋文의 경우이다. 金宏弼의 家産이 籍沒되어 그 평풍의 소장이 옮겨지다가 書院에 장치한 진말을 적은 것이다.

寒暄堂畫屏跋⁽²³⁾

善藏者藏於天太虛者天之實也虛而藏用故其藏也無藏「物無所遁而人莫與爭」大而天下小而一介以力控之則喪以智籠之則失必也物各付物藏之於自然而後責付於天矣今觀寒暄先生家藏古畫轉沒飄泊主不得爲有者近百年矣於今復得爲主人之藏焉「數紙遺墨非有人物典守鬼神呵護鼠不得破蠹不得蝨風不得毀兩不得於」趣色涵芒完如昨日「粧成十幅短屏」蒼檜老松碧樹青楊古木叢篁琴鶴牛羊垂綸翫月雲山草屋百里長河千尺懸瀑光陰何代息偃爲孰想像先生對眼「臥遊寓目」興思做得甚樣懷耶 「舒卷萬念嘯咏俛仰颯爽精爽依備留在於畫圖中彷彿猶見於羹牆間其人已去欲聞噫歎而不可得焉」爲子孫者桑梓猶敬況此神會之地如見其面目者乎後生之欲見先生而不得者亦於此焉輿懷盡出安堅堅有傳神法爲東國吳道子「指與物化不以心緒描出自然之眞幻成生香活毛初付之以物而已」及先生之不幸也籍其家家業蕩盡靡有敝帚獨此一物藏於圖書署「於是而

(21) 三刻本 권2 書, 改訂本 권3 書의 答成聽松書의 再答.

(22) 三刻本 권2 書, 改訂本 권3 書의 與成大谷書의 7원중 제2편.

(23) 三刻本 권2 跋의 寒暄堂畫屏跋, 改訂本 권4 寒暄堂金先生畫屏記. 改訂本에는 跋을 記로 하고 제목도 고쳐 편집하였다.

藏之以無藏非吾之有也」又不知在何年代飄出民家莫知所之 復歸於無藏之地矣^① 去歲庚午 主上偶^②於召對問金宏弼遺跡「可得見乎」承宣李忠綽登對臣見一民家有金某家藏畫屏帖云^③ 先生之孫草溪守立爲探於忠綽忠綽曰曾見於縣監吳彥毅家彥毅之孫學謙初得於其聘家^④ 許元輔之門改粧新絹以與金草溪皆非人力所及 主上之間初發於自然之偶他人之傳曾出於自然之幸家孫之得終歸於自然之會是知付之以理之自然者實而無跡聽之以物之自化^⑤ 者虛而有待無藏也故有藏無意也 故善藏「可見其藏於天而物莫能遁人莫能奪也」請主人勿以爲家藏藏於先生書院其庶幾善藏者乎「若以金藏而世守之未必不爲壑藏之舟矣」金草溪年近八十爲訪我於頭流請記巔末辭不獲焉以識隆慶五年辛未重光協洽玄默渚灘十一日南冥曹植

①은 「於是而藏之以無藏非吾之有也」로 고쳤고 ②는 삭제, ③은 삭제, ④는 「曾得於其書祖」로, ⑤는 然으로 고쳤다. 그리고 군데 군데 뺀 것이 거의 3분의 1이나 되고 있다.

다음은 貞夫人崔氏墓表의 경우이다. 崔氏는 南冥과 從遊했던 黃江 李希顔의 母夫人이다. 특히 南冥과는 大谷 成運, 聽松 成守琛 등과 함께 遺逸로 천거되었고 道義之交도 맺어진 사이라고 칭송하는 처지이다.⁽²⁴⁾

貞夫人崔氏墓表⁽²⁵⁾

貞夫人崔氏之生也於會昌政丞之舊也亡也於草溪元戎之世也政丞全門四世居鈞軸之位世襲忠貞功在社稷夫人爲家兒「稱其門則大矣侈夫人之行則未也」元戎揔戎三朝振夷夏之威身如寒士室如懸磬夫人爲內助「宜其家則有之原夫人之德則未也」夷玉天球山龍粉米是夫人大兒仲兒小兒羣女也「始可言吾家之有而未始言夫人性分之有也」植與李高靈希顔善嘗拜夫人於堂下「見象之牙知非牛也」望之肅而敬者承祭祀奉移天之儀也溫而厲者撫婢妾教子女之則也同知公憂國忘家終世靡室夫人「裕蠶」以仁經紀「田宅」儼一禮^① 家之門同知每歎曰得渠^② 如此家人生業斷不入心內矣夫人何嘗力學「攻文」用以修齊其治者乎「只初受得分數多能不失所有而已金不爲火純玉不爲人溫」蓋其性則然也高靈「嘗以植爲不佞於世上人應不諱於墓中人矣」徵余以表謹序其系夫人系出通川郡大將軍錄與我太祖並仕麗季始居于會昌即今之昌原府也 錄生判書雲海雲海生左議政潤德寔夫人之曾王父也王父曰叔孫資憲大夫全羅道兵使考諱季漢訓錄參軍妣金氏縣監振之子晨之女也「有男三人女二人」享年八十有二嘉靖乙巳附于同知公墓下即郡之青溪山風原也女長適忠義衛禹希舜有子曰宗侃次適忠義衛申湜有子曰景深長子希曾未弱冠登第授弘文館修撰次子希閔繼登第授弘文館校理皆早世季子希顔樂善好學「屢捷巍科才兼弓馬」朝廷始起以典獄署參奉拜嘉而退又薦爲高靈縣監未二年辯歸「人曰惜也三君子之行也獨」修撰有子曰彭年有子曰良受天受婿曰進士文益成學士鄭堅發得校理有子曰彭信不祿只有婿曰^③ 佐郎謙與旁室子彭齒高靈有婿曰李得寶與小家子硯丁後娶士人李漢植女仁善之後不繁「班班僅有見於文豹一點人亦曰李氏其衰矣」獨其不朽者樹在人口書以入石皇明嘉靖三十五年丙辰「族人」昌山曹植誌

위에서 ①은 法, ②는 賢助, ③은 婿로 고쳤고 뺀 부분이 거의 3분의 1이 된다. 이 墓表는 南冥이 솔직한 성품을 나타내어, 墓道文에서 흔히 저지르기 쉬운 지나친 칭찬을 삼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삭제 변조한 것은 文集 全編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한 主題의 글 중에서 한 대목만을 轉載한 경우도 있다. 「解關西問答」⁽²⁶⁾은 중간에 극히 일부

(24) 節反淵源錄 권2 從遊項 참고(庚子年刊)

(25) 三刻本 권2 墓誌, 改訂本 권5 墓表.

(26) 三刻本 권2 雜著, 改訂本 권4 著著에는 關西問答後辨으로 改題하였다. 晦齋集에는 追錄으로 李全仁이 기록한 「關西問答錄」이 수록되어 있다.

만을 轉載하였고 앞뒤를 모두 삭제하였다. 「關西問答」은 晦齋 李彥迪이 1547년(明宗 2) 良才驛壁書事件으로 江界에 귀양가서 지낼 적에 그 庶子인 李全仁이 수행하여 묻고 대답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南冥은 이 글 내용의 잘못과 또 기록자의 잘못을 풀이하면서, 李全仁의 출생 내력을 적고 있다. 李全仁은 晦齋가 慶州 訓導로 있을 적에 데리고 있던 側室의 소생인데 그 側室이 임신을 한 채 慶尙道 水使로 와 있던 曹潤孫에게 갔었다고 한다. 曹潤孫이 嫡子를 두지 못하고 죽자, 李全仁은 그집 奉祀를 맡아 家系를 이으려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曹植 또한 崔門과 姻戚의 관계에 있어서 元父를 찾아가라고 「復古」를 권고하였었다. 이 글에서 끝내 復古하여 晦齋에게 간 전말을 적고 그 關西問答 중의 5가지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이 글 중의 앞뒤를 모조리 빼고 세 가지의 지적 사항만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도 실제 1543년(中宗 39) 晦齋가 慶尙道觀察使로 와 있으면서 한번 만나기를 청하는 글을 보내자, 南冥은 “吾知相公解歸田里之日 不久 當角巾 相尋於安康里第 尙未晚也”라고 答書를 보내 相面을 거부한 사실과 함께 晦齋 門人과의 사이에 또한 서먹한 교투리를 만든 것이다.

또 學記類編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대로 圖面은 물론, 첫 章의 「論道之統體」에서 9葉을 삭제하고 중간의 「周子曰無極而太極…」을 始作으로 삼고 있으며 중간 중간에 句節은 말할 것도 없고 張子·西山眞氏 등의 말을 삭제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原本에 없는 약간의 注記를 가했을 뿐이다. 그리고 뒤에 덧붙인 圖面도 變造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李晚寅의 跋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類編之成 亦出於仁弘 以本不相須之之圖之記 牽強而捏合之 其斧鑿之痕 傳會之迹 有不可誣者 且許多圖本 間不無叢雜張瑣之相參 亦不免失其本來面目 先生仲子漆原公未必中理之論 豈不信而有徵歟 自澗松趙公已有刊正之意 當欲集粹言而未果 則可認其深病於紊亂也⁽²⁷⁾

그러나 그 오류의 수정보다도 張載의 이론을 중시하고 朱熹의 이론을 附隨的으로 다루거나 경시한 편집태도를 고치려 한 면이 두드러진다 하겠다.

4) 삭제·변조의 現實的 條件

위와 같이 南冥의 文集이 누더기가 된 원인과 조건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수가 있다.

첫째는 역적으로 몰린 鄭仁弘 때문일 것이다. 鄭仁弘은 南冥의 수제자인 것은 위에서 언급했거니와 南冥이 늘 방울을 차고 다니며 자기를 깨우쳤고 칼을 案前에 놓고 자기의 결단을 다졌는데 그 방울은 金宇顛에게, 칼은 鄭仁弘에게 주었다. 또 晩年에 임금을 만나 時務

(27) 改訂本 德集 끝의 重刊南寅先生文集跋.

(28) 來庵集 권11 書의 答李爾隆 答都堂 등 참고.

를 論하고 鄭仁弘을 자기 대신 登用할 것을 말하였다.

이런 鄭仁弘이 스승의 뜻과 행동과 학문을 철저히 답습하였다가 끝내 禍를 입어 스승에게까지 累가 되었던 것이다. 실제 鄭仁弘은 逆賊으로 몰릴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그의 罪目은 廢母論을 부추켰다는 것이었으나 그는 廢母論議가 있었을 적에 직함만 가지고 陝川에 있으면서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政事에도 上疏로 의견을 나타냈을 뿐, 직접 간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鄭仁弘의 被禍는 순전히 仁祖反正으로 집권한 西人들의 당쟁 의식과 개인 감정에서 나온 것일 것이다.

둘째는 南冥이 남의 잘못에 대해서나 자기의 견해를 나타낼 적에 철저히 탕에도 起因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보이는 대로 學者가 벼슬 자리에 연연하거나 不義에 뛰어들거나, 의리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許與하지 않고 때로는 나무람과 질타를 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南冥이 신중치 못하다는 것과는 다르다. 鄭琢이 찾아와 談笑를 나눈 끝에 그의 才氣와 性急을 보고 기르던 소를 주어 그의 愼重한 처신을 暗示했다는 얘기⁽²⁹⁾는 그의 인생관과 처세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셋째는 南冥의 老莊적 분위기이다. 그의 詩와 文에서 이런 모습이 곳곳에 보이는데 退溪는 南冥의 人品을 평하여 「一則曰 傲物輕世 一則曰 高亢之士 難要以中道 一則曰 老莊爲崇」이라 했다.⁽³⁰⁾ 이 말은 南冥의 성격과 함께 道家的 경향을 말한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뒤에 儒生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자 鄭仁弘은 그 主張者인 鶴峯의 제자 崔現에게 말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글을 보냈다. 그러나 崔現은 오히려 스승 鶴峯에게서 「南冥高風峻節 卓乎難及 而至於立言垂教 有些未盡處」라는 평을 들었다고 하면서 「或人所傳 鄙生謂南冥所著文字 分明從老莊來 台監 雖欲辨明掩蓋得乎云者 果有之矣」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다.⁽³¹⁾ 이것은 단순히 험뜯기 위해서 지적한 것들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朱子學에 그리 철저히 하지 않은 태도가 있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1610년(光海君 2) 晦齋 退溪를 포함하여 五賢의 文廟從祀가 이루어지자, 鄭仁弘은 여러 사실을 들어 晦齋 退溪의 從祀를 논박하였고 이어 成均館儒生들에 의해 鄭仁弘은 靑衿錄에서 삭제되는 등의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다. 鄭仁弘의 제자들 곧 鄭蘊 文景孝등은 여러가지 스승의 수난을 보고 스승을 변호하고 나왔으나 이미 이 문제에 대한 士論과 黨論이 깊게 얽혀서 불식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후 南冥 계열의 대부분은 처음에는 南人과 北人으로 활약했다가 西人이 집권한 뒤에는 中央政界의 진출이 부분적인 경우 외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南

(29) 燃黎室記述 권18 宣祖朝故事本末 「宣祖朝相臣」 鄭琢條.

(30) 위의 책 권19 廢主光海君故事本末 鄭仁弘削籍條의 鄭仁弘 上疏文. 이 상소문은 來庵集의 辛亥年 辭職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는데 몇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31) 認齋集 권8 書의 答鄭仁弘과 又答仁弘書 및 別集 권2 拾遺의 答鄭仁弘書와 附仁弘原書를 참고할 것, 來庵集에는 「附仁弘原書」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冥文集만이 아니라 神道碑文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鄭仁弘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가 나중에는 許穆, 趙綱의 글로 바뀌었고 그 뒤에는 老論인 宋時烈의 손에서 나와 立碑케 되었고 墓碑文도 成運의 것을 뽑아 버리고 다른 것으로 代置하는 수난까지 겪었다.⁽³²⁾

이런 현실적 조건으로 하여 1894년에 와서는 文集의 전면 改編이 단행되어 南冥의 累를 덜고 老論 및 南人들의 비위를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때로 종래에는 故人이나 先師의 文集을 편찬 간행하면서 原文에 대한 修正・補完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중에 대상 인물이 지니고 있는 행동 사상의 본질을 흐리거나 原文을 潤文하는 정도를 벗어나 變造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다. 특히 많은 문제를 던진 인물들에 대해서는 더욱 심하였다. 南冥集은 그런 類의 두드러진 하나가 될 것이다.

(32) 현재 山淸 矢川の 南冥墓所 아래에는 宋時烈撰의 神道碑가 세워져 있다.